

취업주부와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실태 및 영향요인

Participation of Household Labor of Employed Wives and Husbands and It's Influential variables

상명대학교 가정학과
석 사 유 희 숙
부 교 수 두 경 자

Dept. of Home Economics, Sang Myung Univ.

Master : Hee suk, Yoo

Associate prof. : Kyung ja, Doo

〈목 차〉

I. 문제제기	IV. 연구방법
II. 선행연구 고찰	V. 연구결과 및 해석
III. 연구문제	VI. 결론 및 제언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articipation of household labor of employed wives and husbands and it's influential variabl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87 couples(employed wives and husbands) living in Seoul.

The data were analyzed by various statistical methods such as Frequency, Percentile,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

1. Wives spend on average of 7 hours and 23 minutes(per day), of 6 hours and 35 minutes(per weekday), of 12 hours and 7 minutes (per weekends) on household labor, whereas husbands spend on average of hours and 38 minutes(per day), of 2 hours and 11 minutes(per weekday), of 5 hours and 18 minutes(per weekends) on household labor.

Wives performed most childcare, next, food of the household labors. Husbands performed most childcare, next, housing of the household labors.

2. In wives' participation of household labor, the influential variables were the number of child, wife's age and wife's education level.

In husbands' participation of household labor, the influential variables were the number of child, husband's sex role attitude, wife's age, and flexibility of wife's work.

I. 문제제기

196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 여성이 본격적으로 취업에 참여하기 시작한 이래 정부의 근대화 정책에 따른 고용확대 과정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미혼여성에 비하여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1997년도의 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가 4가구 중 1가구로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이기영 외, 1998).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미래의 사회는 남녀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로서 여성에 관한 사회의 편견과 선입견의 감소로 인한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가 증가하여 기혼여성의 취업이 보편화할 것이다. 기혼여성의 취업은 가사일과 직장일의 병행에서 오는 여성의 역할 과중을 초래하여 취업 부부에게 가사노동 분담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사노동 분담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편의 적극적인 가사노동참여가 요구된다.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참여에 대한 연구는 안정된 결혼을 위해서는 가사노동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인식과 가사노동을 더 이상 주부, 여성의 일로만 국한할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연구할 가치를 지닌다(송혜림, 1988).

그러나 이러한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1995년도 한국가족학연구회에서 265쌍의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한 조사에서 취업주부 남편의 가사참여 정도에 대하여 부부 모두 '남편이 조금 돕는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남편이 전혀 돕지 않는다는 응답도 부인 16.6%, 남편 11.0%로 나타나(최규련외, 1995), 남편들은 매우 적은 시간만을 가사노동에 할애하여 여전히 부인에 비해 극히 적은 분담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sanik, 1981; Coveran & Sheley, 1986; 이기영 이승미, 1990, 1994).

이에 본 연구는 가사노동분담의 전 단계로서 취업 부부의 가사노동 참여 현황과 그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가 일반화되어 부부의 가사노동분담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취업주부와 가사노동

1) 가사노동시간

최근 연구에서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취업·비취업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을 비교한 김정희(1993)는 취업한 부인은 하루 6.7시간을, 취업하지 않은 부인은 하루 8.2시간을 가사노동에 참여한다고 하였다. 이기영 외(1994)의 연구에서 도시 근로자 가정 부인의 하루 가사노동시간은 전업주부의 경우 평일 8.3시간, 취업주부의 경우 3.5시간이었다. 휴일에는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각각 5.7시간, 5.4시간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평일의 남편 가사노동 시간은 부인의 취업과 상관없이 20분 정도로 나타났으며 휴일에는 전업주부남편이 1시간 30분, 취업주부 남편이 2시간정도로 30분 더 많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무직 기혼여성 부부의 가사노동분담 실태를 연구한 조희금(1998)의 연구에서도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은 평일 2시간 40분, 휴일 6시간 7분이고,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평일 35분, 휴일 2시간 38분으로 휴일의 가사노동시간이 평일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미환(1996)의 연구에서도 취업주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평일 2시간 21분, 휴일 4시간 31분으로 휴일에 2시간정도를 평일 보다 더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취업주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비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2) 가사노동영역

남편과 부인의 가사노동참여는 시간 뿐 만이 아니라 가사영역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정우(1972)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남편과 자녀의 가사참여율이 외국에 비해 저조하다고 지적하면서 남편이 주생활영역에 20~70%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나 식생활과 의생활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20%의 참여율을 보인다고 하였고, Thompson과 Walker(1989)도 부인이 가장 참여를 많이 하는 분야가 식생활 영역이라 하였다. 부인들은 보다 전통적인 과업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나 남편들은 주로 자녀양육, 주생활 등의 가사노동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rk, 1985; Shaw, 1988; Thompson & Warker, 1989). 그 외의 연구(허경옥, 1994; Blair & Lichter, 1991)에서도 남편들은 가사업무 중 특히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격의 여성중심형 과업(허경옥, 1994)이나 여성 중심형 가사노동을 기피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로 보면 본 연구에서도 취업주부 남편의 주된 가사노동 참여 영역이 자녀양육과 주생활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2. 가사노동참여 관련변인

1) 사회인구학적인 변인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조사대상 부부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자녀의 수, 막내자녀 연령, 가사노동 조력자를 포함하였다.

우선, 연령을 보면 Coverman과 Sheley(1986)는 30세 이전의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이 가장 길다고 하였고 윤명희(1985)와 이영미(1991)의 연구에서는 주부와 남편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사노동분담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길표 외(1991)는 남편의 연령이 낮을수록 식생활 영역에, 남편의 연

령이 높을수록 주생활 영역에 대한 참여가 높다고 하였고, 허경옥(1994)의 연구에서는 젊은 남편일수록 여성중심형의 가사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부부의 교육수준의 경우,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에 더 많이 참여한다(Hansen, 1982; Berado et al, 1987; Hardesty & Bokemeier, 1989; Padgett, 1991)는 연구가 있는 반면 부인의 교육수준은 가사노동시간과 부적인 관계를 갖거나 아무런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Ericksen, Yancey & Ericksen, 1979; Wheeler & Arvey, 1981; Berado et al, 1987; Ross, 1987; Padgett, 1991; 박민자, 1992; 박주희, 1993)도 있다.

남편의 직업과 관련해서는 비전문직에 종사하는 남편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자녀양육에 더 많이 참여한다는 연구 결과(허경옥, 1994:재인용)가 있는 반면에 남편의 직업이 가사노동참여와 무관하다는 연구 결과(Coverman & Sheley, 1986)도 있어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가사노동시간 증가와 정적인 관계가 있다. Walker와 Woods(1976)는 자녀가 없을 때보다 자녀가 1명일 때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은 약 3시간 증가하고, 또 1명이 더 증가할 때마다 약 1시간씩 증가한다고 하였다. Coverman(1985)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학령기 이전이나 학령기의 자녀수가 많을수록 증가한다고 하여 자녀수의 증가는 가사노동시간의 증가를 초래하는(임정빈·임혜경, 1992)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막내 자녀의 연령은 일반적으로 가사노동의 양과 질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이가 어릴수록 가사노동의 양과 질이 높아진다(한경미, 1987). Coverman(1985)은 가사노동시간 연구에서 자녀가 어릴수록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유의하게 많았다고 하였으며, Coverman과 Sheley(1986)는 4세 이하 1명의 자녀를 가진 남편들의 자녀양육시간이 10년 사이에 2배나 증가하였고, 취학전 자녀를 가진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였다(Coverman, 1985; Coverman & Sheley, 1986; Rextoat & Shehan, 1987; Shelton, 1990; 임정빈, 1981; 송혜림, 1988)고 보고하였다. 막내 자녀의 연령은 어릴수록 신체적 돌보

기가 많아지므로 부부의 가사노동참여 시간은 증가될 것으로 여겨진다.

가사노동조력자는 친척이나 고용인이 포함된다. 고용인에 관련된 변인을 가족 수입과 관련시키는데, 취업주부의 수입이 많을수록 고용인의 가사수행이 증가하는 반면 수입이 적을수록 고용인의 도움이 적어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한다(이연주, 1984). 그리고 가정고용인이 가사노동을 담당하고 있을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는 상대적으로 감소한다(송혜립, 1988). 결국 가정고용인은 부인과 남편에게 부과되는 가사노동요구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부인 뿐만 아니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송혜립, 1988; 박주희, 1993)으로 나타났다.

2) 직업용통성

직업 용통성의 경우, 남편의 노동시간 용통성이 많은 경우 그의 자녀양육에의 참여시간은 증가하였고(허경옥, 1994) 교대근무의 직업을 가진 경우 출퇴근 시간이 다르므로 일상근무와 비교해서 식사준비의 총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남편의 가사참여가 증가할 수도 있다(Coleman, 1988; Blair & Lichter, 1991; 이미숙·유안진, 1997:재인용)고 하였다.

3) 성역할태도

부인의 성역할 태도를 살펴보면, 성역할 태도가 평등주의적일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는 증가하였다(Barnett & Baruch, 1987; Coltrance & Ishii-kuntz, 1992; Mederer, 1993). 송혜립(1988)의 연구에서도 부인이 평등지향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질 경우 남성형 과제를 제외한 여성형, 공동형, 육아과제에서 남편의 참여가 증가하였다.

남편의 경우, 가사노동참여에 있어서 남편이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질수록 식사준비, 청소, 자녀양육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였고(Abdel-Ghany & Nickols, 1983; Bird et al, 1984),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보다 평등적일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하였다(Barnett & Baruch, 1987). 김양희외(1992)의 연구에서도 부인의 취업을 지지하는 남

편과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는 남편들이 가사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인과 남편 모두 근대적 성역할 태도를 지닐 때 가사노동시간이 길었다(차성란, 1998).

그러나 가사노동참여가 성역할 태도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박주희(1993)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성역할 태도와 자신의 가사노동시간 사이에 아무런 상관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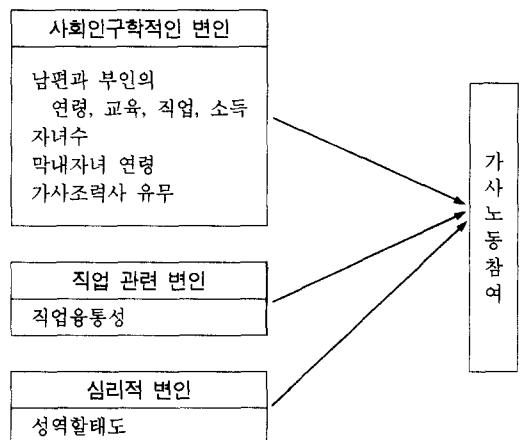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편의 성역할 태도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으나 성역할 태도는 가치관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가사노동 참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Ⅲ. 연구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취업주부와 그 남편의 가사노동시간과 영역별 가사노동참여 시간은 어떠한가?
- 2) 사회인구학적 변인, 직업관련 변인(직업 용통성), 심리적인 변인(성역할 태도)이 취업주부와 그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모형〉



IV.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의 수집

조사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가사노동양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연령대(20~30대)의 맞벌이 부부가 다수 포함되도록 유의 표집하였다. 예비조사는 1998년 8월 12일부터 21일 까지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설문지의 문항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1998년 9월 7일부터 10월 2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7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후 62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그 중 기재내용이 부실한 것을 제외한 총 574부의 설문지를 분석대상으로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는 남편과 부인이 각각 작성하여 부부의 설문지를 함께 회수하였다.

2. 조사도구

설문지 구성은 사회인구학적 변인(6문항), 직업관련변인(7문항), 성역할 태도 변인(7문항), 남편과 부인의 가사노동참여시간(11문항)이다.

1) 가사노동참여시간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시간을 측정하기 위하여 응답자가 주어진 특정 가사내용에 소비한 시간을 기록하는 자기보고식 방법을 사용하였고, 외생활, 식생활, 주생활, 자녀양육, 구매, 관리 영역에 해당하는 16가지 활동에 대하여 질문하는 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남편과 부인의 가사노동 시간측정을 각 가사내용별로 평일 하루와 휴일 하루에 수행한 시간을 측정하였다. 이 측정을 통하여 평일 중 하루와 일요일 하루의 측정치에 각각 6과 1을 곱하여 합한 후 7로 나누어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을 산출하였다.

2) 직업관련변인

직업관련변인은 직업용통성이다. 직업용통성은 출퇴근 시간 용통성, 병가·휴가에 대한 용통성, 근무

중 개인시간 유무에 대한 질문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점수의 범위는 최하 5점부터 최고 25점까지이다. 점수는 낮을수록 직업용통성이 낮은 것을 나타내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용통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3) 성역할 태도

성역할 태도 척도는 Bird와 그의 동료들(1984)의 척도, 박주희(1993)의 척도와 허경옥(1994)의 척도를 혼합하여 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점수의 범위는 최하 7점부터 최고 35점까지이다. 점수는 낮을수록 응답자의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 태도를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전통적, 근대적 성역할 태도를 나타낸다. 각 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부인의 경우 .60, 남편의 경우 .66이었다.

4) 사회인구학적 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부부간의 가사노동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이 취업주부와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정한 변수이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교육수준, 소득, 자녀수, 막내자녀 연령, 가사노동 조력자 유무를 포함하였다. 가사노동 조력자의 경우 조력자가 없는 경우를 1, 조력자가 있는 경우는 2로 가변수 처리하였다.

3. 자료의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가사노동참여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직업관련 변수, 심리적 변수들의 남편과 부인의 가사노동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남편=287, 부인=287)

변 수	집 단	남편 N(%)	부인 N(%)
연 령	20대	44(15.3)	88(30.7)
	30대	116(40.4)	103(35.9)
	40대	106(37.0)	91(31.7)
	50대 이상	21(7.3)	5(1.7)
학 령	중졸이하	10(3.5)	16(5.6)
	고졸, 전문대졸	108(37.6)	162(56.4)
	대졸이상	169(58.9)	109(38.0)
직 업	노동판매직	20(7.0)	48(16.7)
	자영업	62(21.6)	59(20.6)
	사무직	90(31.3)	102(35.5)
	전문관리직	115(40.1)	78(27.2)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70(24.4)	64(22.3)
	100~150만원미만	97(33.8)	78(27.2)
	150~200만원미만	65(22.6)	67(22.6)
	200~250만원미만	32(11.2)	31(10.8)
	250~300만원미만	11(3.8)	31(10.8)
	300~350만원미만	12(4.2)	18(6.3)
	350만원이상		
자 녀 수	무	61(21.3)	
	1명	77(26.8)	
	2명	116(40.4)	
	3명이상	33(11.5)	
막내자녀연령	무	61(21.3)	
	1~3세	66(23.0)	
	4~6세	33(11.4)	
	7~12세	58(20.3)	
	13세이상	69(24.0)	
가사노동조력자	유	114(39.7)	
	무	173(60.3)	
직업유통성	높음	26(9.1)	25(8.7)
	보통	225(78.4)	209(72.8)
	낮음	36(12.5)	53(18.5)
성역할 태도	진보주의적	16(5.6)	30(10.5)
	보통	112(39.0)	177(61.6)
	전통적	159(55.4)	80(27.9)

2. 연구결과분석

1) 가사노동참여 실태

① 남편과 부인의 가사노동참여시간

부인의 경우 1일 평균 가사노동참여시간은 7시간 23으로 나타났다(표 2). 이것은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한경미(1991)의 5시간보다 많고, 김정희(1993)의 7시간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평일의 부인의 가사노동참여 시간은 6시간 35분, 휴일은 12시간 7분으로 평일에 비하여 휴일의 가사노동참여 시간이 2배 가까이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휴일의 부인의 가사노동참여 시간이 평일의 가사노동참여 시간보다 더 많다는 연구결과(이정수, 고경애, 1985; 임혜경, 임정빈, 1992)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평일에 비해 휴일의 부인의 가사노동참여 시간이 더 많은 원인은 휴일에는 가족들이 모여있어 식사준비 등 가사일이 많은데다가 취업주부이므로 평일에 못했던 가사노동을 휴일에 몰아서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평일보다 휴일에 시간이 여유있으므로 평소 무관심했던 가사일을 돕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취업부부의 가사노동참여시간에 관한 본 연구에서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도 부인의 가사노동참여시간이 3배이상(1일 평균)높아 대부분의 가사노동이 부인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영역별 가사노동참여시간

〈표 3〉에서 취업주부는 가사노동영역 중 식생활에 평일 139분, 휴일 216분으로 식생활 영역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사노동 중 부인이 가장 참여를 많이 하는 분야가 식생활 영역이라는 연구결과(Shaw, 1988; Thompson & Walker, 1989)와 일치하는 것이다. 식생활 영역 다음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이 자녀양육(평일 100분, 휴일 247분)이었다. 이는 식생활 영역은 생명유지에,

〈표 2〉 남편과 부인의 가사노동참여 시간

(단위:시간/분)(남편 N=287, 부인 N=287)

1일 평균		평일 평균		휴일 평균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2시간 38분	7시간 23분	2시간 11분	6시간 35분	5시간 18분	12시간 7분

남편의 가사노동참여 시간은 1일 평균 2시간 38분으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남편의 가사노동참여 시간보다 많은 수준이다(이정수, 고경애, 1985; Walker & Woods, 1976). 남편의 평일과 휴일의 가사노동참여시간을 비교해보면, 평일은 2시간 11분, 휴일은 5시간 18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희균(1998)의 사무직에 근무하는 부인의 남편을 대상으로 조사한 평일 35분, 휴일 2시간 38분보다 많았다. 조미환(1996)의 비취업 주부 남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평일 1시간 38분, 휴일 3시간 41분보다 훨씬 많고, 취업주부 남편을 대상으로 조사한 평일 2시간 21분, 휴일 4시간 31분과 비슷한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 남편의 휴일 가사노동참여 시간이 평일의 가사노동시간보다 2배정도 높게 나타난 것은

자녀양육은 자녀를 성장시키는데 필수적인 노동이므로 취업주부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에서 남편은 가사노동영역 중 자녀양육에 평일에는 46분, 휴일에는 144분으로 자녀양육 영역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사노동 중 남편이 가장 참여를 많이 하는 분야가 자녀양육이라는 연구결과(Berk, 1985; Shaw, 1988)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자녀양육 다음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은 주생활(평일 30분, 휴일 80분)이었다. 이는 남편들이 자녀양육을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할 영역으로, 주생활은 남편들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부인을 위해 시간 있을 때 마다 도와야 하는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

〈표 3〉 남편과 부인의 영역별 가사노동참여 시간

(단위: 분)(N: 남편=287,부인=287)

가사노동영역	평 일		휴 일	
	남편	부인	남편	부인
의생활				
세탁과 옷수선, 다림질	7.3	33.0	14.5	62.4
식생활				
음식만들기, 상차리기	12.7	89.3	17.2	143.7
설거지 및 식사뒷처리	12.0	50.1	13.5	72.1
합계	24.7	139.4	30.7	215.8
주생활				
집안청소	14.1	43.5	30.6	73.5
욕외청소, 주택 및 정원손질, 수리	5.2	8.6	19.9	20.2
자동차 점검 및 수리	10.8	4.2	29.6	7.7
합계	30.1	56.3	80.1	101.4
자녀양육				
자녀 밥먹이기, 목욕시키기, 옷입히기, 잠재우기	11.6	34.4	24.0	55.9
자녀와 놀아주기	23.0	39.6	92.8	147.0
자녀에서 책읽어주기, 공부봐주기 등 학습과 관련된 일	11.9	26.0	27.0	43.6
합계	46.5	100.0	143.8	246.5
구 매				
장보기 및 물건구입	13.1	39.4	43.0	80.6
관 리				
가계부 정리 및 각종 서류처리 및 공과금 내기	9.6	27.2	6.0	20.7
전 체	131.2	395.2	318.0	727.4

한 결과는 남편들이 주생활 참여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Berk(1985)와 Thompson와 Walker(1989)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관리부분인 가계부 정리 및 각종서류처리(평일 10분, 휴일 6분) 등에 참여하는 남편들의 활동시간은 부인 활동시간의 약1/3에 불과하여 가정의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전체적인 가정경제상황 파악과 대처에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2) 취업주부와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 대한 관련 변인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을 종속변수로 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인, 직업관련 변인, 심리적 변인의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회귀분석 결과, 자녀수($\beta=.47$), 부인의 연령($\beta=-.17$), 부인의 교육수준($\beta=.12$)이 취업주부의 가사노동 참여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부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참여시간이 증가하였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사노동의 양과 시간이 증가하는 것은 자녀가 없을 때보다 자녀가 1명일 때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약 3시간 증가한다는 Walker와 Woods(197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며 자녀가 어릴수록 가사노동 시간이 증가한다는 Coverman(198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 때 가사노동참여 시간이 증가한 결과는 부인의 교육수준이 가사노동시간과 부적인 관계를 갖거나 아무런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박주희

〈표 4〉 취업주부와 그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 대한 중회귀 분석표

(N = 574)

독립변수	취업주부			남편		
	b	β	t	b	β	t
부인 연령	-46.20	-.17	4.96*	-28.85	-.19	5.60*
부인 교육수준	46.38	.12	4.63*			
자녀수	109.48	.47	35.84***	31.73	.24	8.92**
부인 직업용통성				16.72	.12	4.12*
남편 성역할 태도				38.47	.18	9.30**
F-값	15.09***			5.40***		
R ²	.14			.07		
D-W	2.02			1.91		

* p<.05 ** p<.01 *** p<.001

(1993)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20~30대가 약 60%를 차지한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자녀수($\beta=.24$), 부인의 연령($\beta=-.19$), 남편의 성역할 태도($\beta=.18$), 부인의 직업용통성($\beta=.12$)이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 영향을 미쳤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부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성역할 태도가 현대적일수록, 부인의 직업용통성이 클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참여 시간은 증가하였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참여 시간이 많은 것은 자녀가 많은 경우 그만큼 자녀양육에 대한 가사노동량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임정빈·임혜경(1992)의 자녀수의 증가는 가사노동시간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현대적일수록 가사노동참여 시간이 증가하는 것은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보다 평등적일수록 가사노동참여 시간이 증가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Abdel-Ghany & Nickols, 1983; Bird et al, 1984; Kamo, 1988). 부인의 직업용통성이 클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참여 시간이 증가하는 것은 직업용통성을 가진 부인은 가사노동을 직접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인이 가사노동을 하는 중에 남편에게 도움을 청해 가사노동에 참여시키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남편의 직업용통성이 클 때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허경옥, 1994)

나 남편의 직업용통성이 클 때 남편의 가사노동참여가 증가할 수도 있다(Moen, 1982)는 연구결과 등과는 일치하지 않았으나 직업용통성이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참여에 관련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 574쌍을 대상으로 취업주부의 가사노동 참여 실태 및 관련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 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가사노동참여 시간은 취업주부의 경우 선행 연구(조희금, 1998)에 비해 많았고, 남편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가사노동참여 시간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참여 시간이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시간보다 월등히 높아 취업주부가 여전히 모든 가사노동영역을 책임지는 이중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편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가사노동영역은 자녀양육과 주생활영역에 한정됨으로써 여전히 남편들은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가사노동을 기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취업주부와 남편의 평일과 휴일의 영역별 가사노동참여 시간을 보면 관리영역을 제외한 모든 가사노동영역에서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참여 시간은 휴일이

평일의 2배였고, 남편의 가사노동참여 시간 역시 식생활과 관리부분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평일보다 휴일에 2배 증가하였다. 휴일의 취업부인의 가사노동참여 시간 증가는 평일에 비해 휴일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밀린 일과 다음주를 준비하기 위한 노동을 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휴일에 대한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시간 증가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부인의 보조자로서 가사노동에 참여하려는 의식을 갖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둘째, 취업주부의 연령·교육수준, 자녀수는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참여시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었고, 부인의 연령·부인의 직업용통성, 자녀수, 남편의 성역할 태도는 남편의 가사노동참여 시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었다. 특히 직업용통성이 큰 남편이 자유재량적으로 직장생활시간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시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의외로 부인의 직업용통성이 남편의 가사노동참여 시간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취업주부가 모든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주체자이고, 남편은 스스로 일을 알아서 하기 보다는 부인이 가사노동을 진행하면서 도움을 청할 때만 응하는 소극적인 협력자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취업주부와 그 남편은 가사노동 중 자녀양육에 비교적 많이 참여함으로써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취업주부와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시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자녀의 수로 나타났다.

넷째,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는 심리적 변인인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가사노동참여가 감소하고 성역할 태도가 현대적일수록 가사노동참여가 증가하여 가사노동참여에 성역할 태도가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가 다른 연구보다 가사노동시간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조사대상자를 가사노동양이 많은 20~30대의 부부(60%)를 유의표집으로 다수 포함시켰고 시간 조사방법에 있어 자기보

고식에 의한 조사를 하여 연구결과에 주관적 판단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시간일지법등 더욱 객관적인 조사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취업 부부의 가사노동참여에서 직업용통성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직장 스트레스도 가사노동참여에 영향을 주리라 본다. 직장스트레스는 가사노동참여를 촉진 혹은 방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남편의 직장내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귀가후 가정에서의 가사노동참여가 달라지리라 본다. 따라서 직장스트레스를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에 성역할 태도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들의 전통적 사고방식 고수로 인하여 남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편의 의식의 전환을 위해, 즉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변화시키고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남녀평등의 성역할 의식을 갖도록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과 환경조성이 요구된다.

셋째, 현대는 점차 취업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취업부부를 대상으로한 가사노동참여와 분담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1) 김양희·박충선·서동인·신화용·조병은·최규련(1992). 학동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족의 가족관계와 정책적 제언. 대한가정학회지, 30(3),285-305.
- 2) 김정희(1993). 한국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경제적 가치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1(4), 37-51.
- 3) 박민자(1992). 부부관계의 평등성.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사회문화연구소
- 4) 박주희(1993). 취업부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성별분리정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송혜림(1988). 남편의 가사노동협력에 대한 주부의 기대 및 남편의 협력실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윤명희(1985). 도시남편의 결혼만족도와 가사노동

- 참여에 관한 연구. 한양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7) 이기영 · 이승미(1994).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도시 근로자 가정 부부의 생활 시간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2(3), 11-26.
 - 8) 이기영 · 조영희 · 송혜림 · 이승미(1998). 생활설계론, 교문사.
 - 9) 이미숙 · 유안진(1997) 부인의 취업유무와 직종에 따른 부부의 가사수행. 대한가정학회지, 35(1), 205-219.
 - 10) 이연주(1984). 주부의 취업에 따른 가정내 역할 수행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131-145.
 - 11) 이영미(1991). 가사노동에 대한 남편들의 의식과 수행에 관한 연구. 생활 문화연구 6. 성신여대 생활문화연구소.
 - 12) 이정수, 고경애(1985). 가족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의 관계-대 도시와 소도시의 비교-. 대한 가정학회지, 23, 67-90.
 - 13) 이정우(1972). 가족구성원 가사분담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0(2).
 - 14) 임정빈(1981). 도시주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2), 73-87.
 - 15) 임정빈 · 임혜경(1992). 1980년과 1990의 도시주부의 생활시간 비교. 대한 가정학회지, 30(1), 261-278.
 - 16) 조미환(1996).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7) 조희금(1998). 사무직 기혼여성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 실태 및 영향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2), 147-159.
 - 18) 차성관(1998). 부부의 성역할 태도가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및 노동공평성 인지에 미치는 상호작용적 영향력. 대한가정학회지, 36(9), 139-152.
 - 19) 한경미(1987). 비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그 환경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 허경옥(1994). 부인과 남편의 가사 및 육아시간 결정요인 연구. 한국가정 관리학회지, 12(2), 90-105.
 - 21) Abdel-Ghany, M. & Nickols, S. Y.(1983). Husband/Wife differentials in household work time: The case of dual-earner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 159-167.
 - 22) Barnett, R.C. & Baruch, G.K.(1987). Determinant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29-40.
 - 23) Berado, D.H., Shehan, C.L., & Leslie, G.R.(1987). A residue of tradition:Jobs, careers, and spouses' time in hous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381-390.
 - 24) Berk, S.F.(1985). The gender factory: The apportionment of weak in American household. New York: Plenum Press.
 - 25) Bird, G.W., Bird, G.A., & Scruggs, M.(1984). Determinants of family task sharing: A study of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345-355.
 - 26) Blair, S.L. & Lichter, D.T.(1991). Measuring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Journal of Family Issues, 12.
 - 27) Coleman, M.T.(1988).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 Suggestions for future empirical consideration and theoretical develop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9(1), 132-148.
 - 28) Coltrane, S. & Ishhii-Kunkz, M.(1992). Men's housework: A life course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43-57.
 - 29) Coverman, S.(1985). Explaining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Sociological Quarterly, 26, 81-97.
 - 30) Coverman, S. & Sheley, J. F.(1986). Change in men's houswork and childcare time, 1965-1975.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3-422.
 - 31) Ericksen, J.A., Yancey, W.L., & Ericksen, E.P. (1979). The division of family ro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301-313.
 - 32) Hardesty, C. & Bokemeier, J.(1989). Finding time

- and making do: Distribution of household labor in nonmetropolitan marriag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253-267.
- 33) Kamo, Y.(1988). Determinants of the household division of labor: Resources, power and ideology. *Journal of Family Issues*, 9, 177-200.
- 34) Mederer, H.J.(1993). Division of labor in two earner homes: Task accomplishment versus household management as critical variables in perceptions about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 35) Moen, P.(1982). The two-provider family; Problems and potentials. in Lamb, M.E.(ed). *Nontraditional families*. Lawrence Erlbaun Associates, Inc, 13-43.
- 36) Padgett, D.L.(1991). Families and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 update. Ph. D. Washington University.
- 37) Rextoat, C., & Shehan, C.(1987). The family life cycle and spouses' time in hous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737-750.
- 38) Ross, C. E.(1987). The division of labor at home. *Social Forces*, 65, 816-833
- 39) Sanik, M.M.(1981). Division of household work 1967-1977.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 175-180.
- 40) Shaw, S.M.(1988). Gender differences in the definition and perception of household labor, *Family Relations*, 1988.
- 41) Shelton, B.A.(1990).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tasks. *Journal of Family Issues*, 11, 115-135.
- 42) Thompson, L. & Walker, A.J.(1989). Gender in families: Women and men in marriage, work, and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845-871.
- 43) Walker, K. & Woods, M.(1976). Time use: A measure of household production of family goods and services. Washington, DC: Center for the Family of the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44) Wheeler, C.L. & Arvey, R.D.(1981).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the famil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1), 10-20.